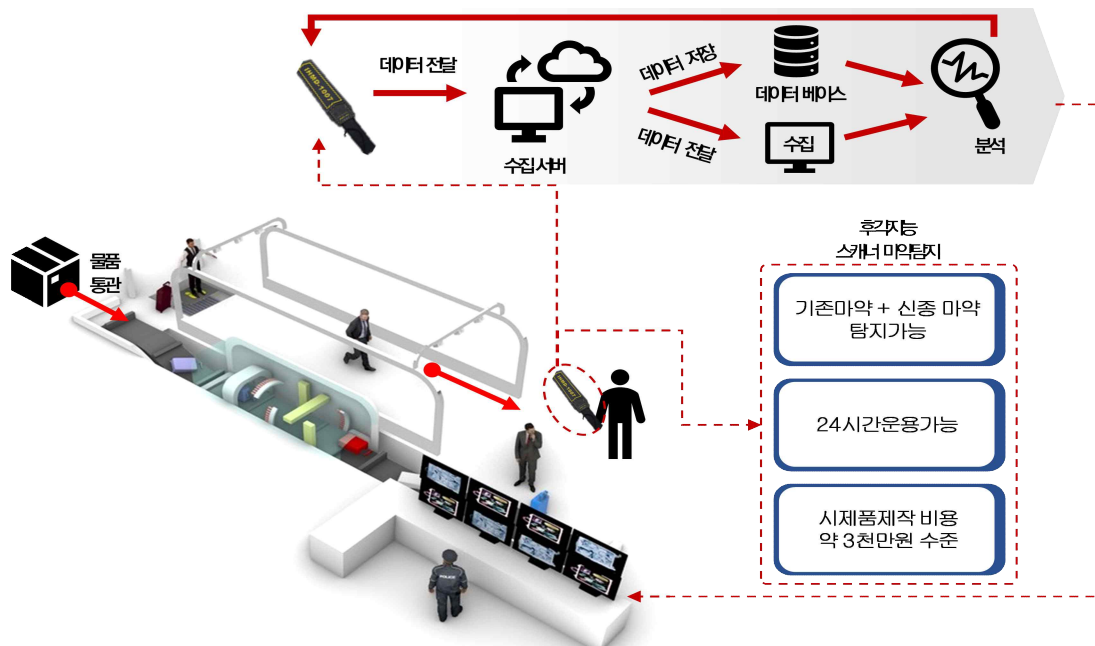


관세청, 마약 탐지 '전자코' 신속 도입 위해 산·학·연과 맞손

- 5월 28일(목), '인공지능(AI) 융합 후각센서 기반 마약 탐지기술 개발 협의회' 개최
- 산·학·연·관 협력하에 '전자코'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적극 지원 결의

관세청은 지능화되는 마약류 밀반입에 대응하기 위해 5월 28일(목) 산·학·연·관 합동으로 '인공지능(AI) 융합 후각센서 기반 마약 탐지기술 활용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에는 관세청을 비롯해 한국화학연구원 등 관세청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7개 기관과 후각 인공지능 기술개발 민간 기업 2개사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일명 '전자코'로 불리는 후각센서는 사람 및 탐지견의 후각 원리에 착안해 개발된 전자 장치로, 공기 중 미세 입자를 분석하여 화학 물질을 감지·식별하고 데이터로 변환한다. 해당 기술을 마약 탐지에 도입하면 대상물을 직접 개봉하거나 접촉하지 않고도 마약류 존재 여부를 탐지할 수 있어, 국제우편·여행자·해외직구 물품 등 다양한 통관환경 속 교묘하게 은닉된 마약을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연구개발 2년차에 접어든 관세청 ‘인공지능(AI) 융합 후각센서 기반 마약 탐지기술’의 조기 현장실증 및 세관 현장 적용 확대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아울러 민간 전문기업들도 후각지능 기술의 현장 실증과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기술개발 현황을 공유하였다.

관세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지난 2025년 9월 「관세 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2.0 사업(Customs Lab 2.0)」에 착수하여, 2028년까지 총 1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불법마약류 탐지를 위한 후각지능 기술·시스템 구축’ 등 핵심 연구과제를 추진 중이다. 경찰청에서도 최근 후각지능을 활용한 마약 탐지기술 개발을 착수하였다.

참석자들은 기술개발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개발된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조기에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이에 관세청은 관세청 차원의 테스트베드(Test-bed) 제공 등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현장실증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김기동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은 “마약류 밀반입 수법이 갈수록 정교화·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 융합 후각센서와 같은 첨단기술을 현장에 빠르게 도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마약 탐지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약 탐지 역량을 지속 고도화하여 불법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국경 단계에서 원천 차단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연구개발장비팀	책임자	과 장	김미정 (042-481-3250)
		담당자	서기관	김이석 (042-481-7780)

